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총력전'

전주시, 전주천·삼천 등 지역 하천 주변 환경정비 자원봉사자 등도 함께 나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전주천변과 삼천변 등 전주시 하천 주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하천 침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범시민 환경정비 캠페인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 청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해양 쓰레기 등 전국 곳곳의 쓰레기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국토 대청소' 개념의 대규모 캠페인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환경 정비에 참여한 공무원과 시민들은 전주천과 삼천변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하천 구간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부유물과 잔재물,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삼천



지난 12일 전주천변과 삼천변 등 전주시 하천 주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하천 침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교~우림교 △우림교~효자다리 △효자다리~홍산교 △홍산교~서신이편 한세상아파트 인근 전주천 합류부 등 삼천변 양방향 7개 구간과 △승안교~한백교 △한백교~다가교 △다가교~서신교 △서신교~백제교 △백제교~사평교 △사평교~가련교 △가련교~추천대교 △추천대교~신종교 △신종교~철도교 △철도교~미산교 등 전주천변 양방향 20개 구간 등 총 27개 구간으로 나누어 하천 부유물과 일반

쓰레기 등을 마감히 수거했다.

또한 하천 산책로와 운동기구 주변의 수초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도 주력했다.

이와 함께 34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각 동 자원단체 회원들은 자신의 주거지와 상점가, 인근 공원 등 주거·마을 공동체 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시는 이번 활동이 행정 주도의 복구 작업을 넘어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사례 벤치마킹

우범기 전주시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 일본 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우범기 시장은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국제대회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참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 시장은 이번 일본 방문 일정 중 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주요 경기를 참관하고, 세계육상연맹(WA)이 주관하는 옵저버(Observer)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옵저버 프로그램은 경기 운영과 선수 지원, 미디어·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 전략 등 대회 전반에 관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주시를 비롯해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인도 아메다바드 등 6개 도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시는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현재 조성 중인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내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 육상경기장은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시설로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규모는 물론 국제 육상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도시 위상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참관은 전주가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과 육상경기장 건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미래세대 등 시민들에게 자원의 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최종 시연을 준비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 모집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초·중·고등학생과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전주시 주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자원의 순환과 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총 10회에 걸쳐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전주시니어클럽, 완산시민경찰연합회 등 5개 기관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전주시가 총괄 기획하고, 전주교육지원청과 주민자치협의회는 교육대상자 모집과 이동을 지원한다.

또 전주시니어클럽은 환경 감사 역할을 맡아 견학을 이끌며, 완산시민경찰연합회는 현장 견학 운영시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공공기관 2차 이전 과감한 전략 절실"

장병익 전주시의원, 시정질문서... 핵심 과제로 KDB 유치 제시 "원도심 이전 통한 도시재생형 모델 대안으로 삼아야" 주장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 중화신1·2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한국산업은행 유치와 원도심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과제로 한국산업은행(KDB)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전주는 오랜 시간 금융도시의 꿈을 키워왔지만, 과거 금융중심지 지정은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이미 입주해 있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운용의 중심축이라면,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의 심장"이라며 "두 기관이 전주에서 만날 때 비로소 전주는 완성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결합해 전주를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도심 공공기관 유치 통한 균형발전 제안

형발전 제안

장 의원은 부지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신도시 건설보다 원도심 이전을 통한 도시재생형 모델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들어오면 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와 건물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주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원도심 내 이전 가능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으로 2차 이전에 대응해야

끝으로 장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전주가 거점도시로서 전북 전체 성장을 견인할 동력을 마련하는 역사적 과제"라며 "전주는 모든 역량을 모아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으로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12년 만에 다시 전주서

내달 14일 덕진공원서 열려

대한민국 대표 국민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이 12년 만에 다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10월 14일 오후 2시, 덕진공원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KBS '전국노래자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편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전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시민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본선 무대에 앞서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예선이 진행되며, 예심을 통해 본선 무대에 오를 참가자가 선발된다.

참가 신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으로 예심 신청이 마감된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민과 전주 소재 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전주시편에는 김성환·강문경·윤태화·점유진·진현 등 인기 초대 가수들이 함께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정문근린공원 맨발걷기 길의 돌과 모래를 고르고 정비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권희성 기자



혁신동 공원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성선옥)는 지난 11일 새마을부녀회 회원, 주민센터 직원, 송영진 전주시의회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문근린공원 맨발걷기 길의 돌과 모래를 고르고 정비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기억의 정원

제2회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

음악의력 문화재단의 후원

Bar.석성근, Vc.김민하, Ten.심용석, F.정현민, Sop.송남영, P.박찬근

2025. 9. 20(토) 5:0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